



주간통일정세 2008-32(2008.08.04~08.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북한군 여성중대 시찰(8/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3407부대 산하 3대혁명붉은기 여성중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김 위원장은 부대를 방문해 훈련을 지켜보고 근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
-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함남 양묘장 시찰(8/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리원군 산림경영소의 양묘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김 위원장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그 보호관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얻어내고, 그것을 널리 퍼치기(퍼뜨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동행
- 앞서 김 위원장은 함경남도 함주돼지공장과 함주평풍덕염소목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정일, 잇단 군부대 시찰(8/4, 8/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북한군 제370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통신은 8월 들어 일요일인 3일을 제외하곤 매일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부대에서 훈련 실태와 정치사상 교육에 대해 보고 받고 “군대에서 사상사업에 계속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전군을 우리당의 혁명사상으로 꼭 들어찬 사상의 순결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군 1366군부대와 제1353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중앙통신이 4일 보도



나. 정치 관련

- **당·군·정 간부 백두산 답사(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과 군, 정부 간부들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백두산 밀영’ 현지지도와 ‘정일봉’ 명명 20돌을 맞아 백두산을 답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통일정책해설서에 “흡수통일론” 반발(8/9, 통일신보; 8/10, 우리 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남한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08 통일정책 해설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대목을 강조한 것은 “북의 제도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족대결의 심화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해설서에 소개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반통일적 정체에서 추호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
- **北단체, 南 정부에 구속학생 석방 촉구(8/9,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8/7, 조국전선 대변인 담화)**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9일 남한 정부가 남한 사회에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체포·구속한 학생과 주민들을 석방하라고 촉구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도 7일 담화를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남한 사회를 “신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
- **노동신문, 南, 대결관념 버릴것을 촉구(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대결관념을 버리는 것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인 ‘주적’론이 공공연히 머리를 쳐들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직접 겨냥해 이같이 주장
 - 신문은 “북과 남은...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서 “동족과 대결하려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사상관념”이라고 주장
- **北, 경제원조에 강한 경계감 표출(8/7, 민주조선)**
 -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조선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 원조에 대해 “새로운



착취와 약탈의 한 형태”라고 폄하하며 “이윤이 없으면 원조도 없다”고 강한 경계감을 표출

- 민주조선은 ‘새 사회건설에서 자기 힘에 의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글에서 “외세에 의존하면 무진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상기
- 신문은 아울러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발전도상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갈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남남(南南)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자립과 민족적 번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

● 北 농장 ‘대의원’ 활동(8/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의 위영애(42) 관리위원장의 일상모습을 자세히 소개
- 조선신보는 대의원들 중에는 평양시 도시관리소 작업반장, 일용품공장 직장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평범한 집단의 책임자들’이 많다면서 대의원들은 “절대다수가 자기의 본업”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대의원의 “특징”이라고 언급
- 위 위원장은 대의원으로서 1년에 1~2차례 정기대회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나 각종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 모습”이며 “모내기로 시작되는 농사일은 물론 농장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분초를 아끼고 동분서주한다”고 신문은 보도
- * 남한의 국회의원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5년마다 선거가 이뤄지며 현재의 제11기 대의원은 2003년 8월3일 선거(인구 3만 명당 1명)를 통해 모두 687명이 선출, 이들 가운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제649호 선거구)을 비롯해 당·정·군 주요 인사들은 물론 계순희(유도)·정성옥(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스타도 포함

● 北 박길연, 외무성 부상 복귀(8/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길연(65) 전 유엔주재 대사가 외무성 부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을 림픽 개회식 참석차 평양을 출발한 소식을 전하면서 “외무성 부상 박길연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함께 떠났다”고 보도
- * 박 부상은 2001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유엔주재 대사로 활동, 그는 1982년 외교부(현 외무성) 미주국장을 거쳐 1985년 유엔주재 대표부 참사, 1991-96년 유엔주재 대사를 역임했으며



귀환 후 외무성 부상에 임명돼 2001년 유엔주재 대사로 다시 임명될 때까지 활동

- * 현재 북한 외무성에는 박의춘 외무상, 강석주 제1부상과 함께 김창규(내부행정), 김계관(핵문제), 김영일(아시아), 궁석웅(유럽), 김형준(중동·아프리카), 최수현(국제기구) 부상 등이 지역 및 분야별로 활동

● 北, 10.4선언 이행 투쟁(8/6, 평양방송; 8/5, 노동신문)

- 평양방송은 6일 “현 시기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데서 그 무엇도 이 북남선언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신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에 조성된 “엄중한 파국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자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 의지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
- 노동신문도 5일 ‘자주통일, 평화변영 위업의 이정표’라는 제목의 글에서 “10.4선언은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고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여기에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주장

● 北, 새 세대 ‘혁명전통 계승’ 강조(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강성대국’ 건설은 물론 사회주의 고수를 위해 “혁명전통의 계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노동신문은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뿌리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설을 통해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 속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고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변영이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기관·기업 등에 석탄 자체조달 독려(8/2, 민주조선)

- 북한 당국이 대규모 탄광 개발 외에도 지역마다, 부문마다 중소규모의 탄광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개발할 것을 독려, 민주조선은 2일 “중소탄광을 통해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것은 나라의 지하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대규모 탄광들이 채굴 가치가 없어 손대지 않은 구역, 이미 채굴이 끝난 구역에서 중소탄광을 실속있게 운영해 남아 있는 석탄을 모조리 캐내야 한다”고 강조
- * 북한 내각은 2006년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허가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



- **北, 북부지역에 밤·호두나무 재배 연구(8/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각종 경제림 조성과 함께 생육가능 지역 확대에 노력, 조선중앙방송은 9일 북부지역인 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가 “밤나무 불완전 재배지대”였던 자강도 여러 지역에 밤나무를 번식시키는 한편 “호두나무, 분지나무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수종의 나무를 풍토 순화시켜 안전재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 **평양서 재활용 생필품 2천종 전시(8/8, 조선신보)**
 - 8월 1일부터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2천종에 달하는 재활용 생필품을 선보였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공장 노동자와 노년층, 주부들이 “해당 단위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주민세대에 잠겨 있는 자재를 회수, 이용해 필요한 각종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평양시 23개 구역 및 군내 공장과 기업소의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반과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가내편의봉사원이 참가했다고 소개하고 이전 전시회에는 섬유제품이 많이 출품됐지만 올해는 장기관, 옷놀이판을 비롯한 전통놀이 기구, 단추, 옷술, 머리핀, 완구 등 각종 일용품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도
 - 전시회를 주최한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이번 행사기간 기술교류와 경험교환도 진행한다고 발표

- **2008년 北수확량 현지조사 재개 전망(8/8, 미국의소리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5년부터 중단된 북한 내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올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쳡 팡 FAO 아시아 담당관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
 - 팡 담당관은 VOA와 전화 통화에서 “FAO가 올해 북한에 수확량 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받으면서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확량 증산과 식량안보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FAO의 작황 조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팡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장마철의 날씨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오는 9월 초에 북한에 관련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발혔.

- **WFP, 5억8천만 달러 대북구호 프로그램 실시(8/7, 릴리프웹)**
 - 세계식량계획(WFP)이 9월부터 62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긴급구호사업(EMOP)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이 7일 발표



- 이에 따르면 WFP는 대북 긴급구호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보다 폭넓은 기부를 받기 위해 대북 구호복구사업(PRRO) 예산안도 대폭 수정, 보충
 - WFP는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평양, 량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의 131개 군에서 구호활동을 펼 것이라며 곡물 47만 1천t, 콩 5만 4천t, 기름 1만 6천t, 칼슘 강화 식품 9만 1천t을 지원할 예정, 그러나 릴리프웍은 9월 시작되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미언급
- **北, 식량 절약은 식량 생산과 같다(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식량 위기’가 세계적인 추세여서 자체 해결이 최선이라며 “식량 절약이 식량 생산과 같다”고 ‘절약’을 강조
 - **北, 대응비료 생산 안간힘(8/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잘 지려면 대응비료 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대응비료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평양 순안구역내 협동농장들을 소개
 - **北, 식량대책으로 ‘林農복합영농’ 확대(8/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산악지형인 스위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악 경사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황해북도 수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벌여온 ‘경사지 관리대상 계획’을 올해부터 황해북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 임농 복합경영이란 경사지에서 토양 침식을 막아 장기적으로 토지 생산성을 높이려는 토지관리 방식으로, 북한은 “동일한 토지구획 안에서 농작물 생산과 임업, 목축업 생산을 동시에 또는 교대로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적 토지관리 체계”(조선신보, 2007.7.18)라고 설명
 - **北, 올해 곡물 170만t 증산 전망(8/6, 릴리프웍)**
 -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쌀 40만t을 포함해 170만t 정도 늘어나 570만t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정, 6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웍’에 따르면 FAO는 세계 식량 현황을 종합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 120만t에서 올해 160만t, 옥수수는 130만t에서 200만t, 그 외 잡곡류는 150만t에서 210만t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北, ‘우리식 철 생산’ 강조(8/4, 평양방송)**
 - 북한이 원자재와 에너지난 속에서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철강재를 생산할 것을 꾸준히 강조, 평양방송은 4일 “최근 철강재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 있다”며 “북부와 서부에 있는 금속



공장에 주철 생산공정이 완비돼 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

- 방송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보산제철소에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다고 소개
- 북한에서 ‘주철 생산’이란 “나라의 긴장한(부족한) 원료와 연료를 적게 쓰면서 철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철강 생산을 일컫는 말로, 최근 금속산업 현대화를 이룩한 공정의 도입과 연관짓고 있음.

● 北, 광산 흙잡들로 ‘해상숲’ 조성(8/4, 조선중앙통신)

- 황해남도 은률군에 있는 은률광산의 장거리벨트 컨베이어 주변이 ‘해상 숲’으로 변모해 새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4일 소개, 중앙통신은 “서해 기슭에 있는 은률광산의 벨트컨베이어수송선을 따라 풍치 수려한 푸른 숲이 펼쳐졌다”면서 “바다 위에 선경을 펼친 푸른 숲으로 지금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은 이 컨베이어로 옮긴 버럭과 박토(노천 채광시 광물을 덮고 있는 흙이나 암석을 거뒀던 것)를 이용해 금산포 앞바다에 있는 능금도와 응도를 거쳐 쥐섬을 향해 방조제를 건설해 수십만ha의 새 땅을 간척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국제적십자사연맹 재해대책 전수받음(8/10, 연합)

- 북한 적십자사가 올 상반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으로부터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전수했다고 IFRC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개
- 북한 적십자사는 2007년 IFRC의 동아시아지역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재난방지(CBDP)’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적십자사를 방문했고, 2008년 5월에는 중국 적십자사가 북한을 방문

● 김정일, 선진 과학기술 적극 수용 강조(2008년 2호, 정치법률연구)

-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8.2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고 전언,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을 자체로 다시 연구하느라 10년, 20년씩 머물거리다가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
-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도 “혁명의 이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주장

- **北 학술지, 범죄인 인도문제 기술(2008년 2호, 정치법률연구)**
 - ‘정치법률연구’는 “범죄자 인도 요청에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조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범죄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이 학술지는 범인이 자국 국적자이거나 범행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을 때, 또 정치범인 경우에도 범인의 외국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
 - 특히 정치범 문제와 관련, 학술지는 정치범을 정치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았거나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경우, 특정한 정치 및 종교조직에 가입해 인도시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오늘 국제사회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치범) 비호권은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외국인 망명자를 보호해 주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로, 비호권 행사에서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
- **올림픽 개막식 주요장면 녹화방영(8/9,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는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주요 장면을 하루만인 9일 녹화 방영
 - 조선중앙방송도 9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 사실을 보도하고 이번 대회가 24일까지 계속되며 육상, 축구, 권투 등 28개 종목에 302개 세부 경기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각지의 체육관과 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소개
- **청소년 민족체육대회 폐막(8/8, 조선중앙통신)**
 -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체육유희경기대회가 8일 평양의 모란봉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태권도, 씨름, 그네뛰기 등의 종목을 겨뤘고 황해남도과 평안북도가 종합 1위를 차지
- **北집단체조, ‘아리랑’에 부각된 ‘영변’(8/8, 조선신보)**
 - 8월 4일 공연을 시작한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사회에서 핵시설로 유명한 영변을 별도의 장면으로 다루면서 비단생산지로 크게 부각
 - 신문에 따르면 작년까지의 아리랑에는 영변처녀들의 비단짜는 모습을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담은 2장 6경 ‘더높이 더빨리’에 일부 체조동작으로서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에는 2장 안에서 독자적인 장면으로 분리해 다룸.



- **北 청소년, 수영 열기 ‘후끈’(8/8, 조선신보)**
 - 북한 전역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수영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아 북한당국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영보급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평양의 창광원과 반월도수영장을 비롯한 각 지방의 소·중학교나 대학 수영장, 바다가, 강·하천 등이 온통 수영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음.

- **평양서 궤도전차 전복, 학생· 400명 부상(8/8, 데일리NK)**
 - 북한 평양에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연습을 위해 이동하던 학생들을 태운 궤도전차가 전복돼 400여명이 부상했다고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가 8일 보도
 - 이 매체는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7월20일 낙랑구역 선교구역 방향에서 전차 4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아리랑 연습에 참가하려던 학생 4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이중 60여명은 부상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도

- **北 개성 등 황해도 침수피해 심각(8/5, 좋은벗들 소식지)**
 - 개성시를 비롯해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24일 폭우로 1천800ha가량의 논밭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5일 소식지가 보도
 - 소식지는 개성시내 도로와 철도가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심하게 파손됐으며 인근 농장의 가축이 떠내려가기도 했다면서 당일 밤 거리에는 차량이 돌아나디며 긴급 대피 방송을 했다고 보도, 특히 “개성시에 주둔하는 2군단 군인들은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독을 다시 쌓는 작업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불어나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소식지는 말하고 “당시 지휘관들이 즉각 군대를 철수시켜 아파트로 대피시킬 정도로 폭우가 무섭게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 **방북자들, 평양도 물가폭(8/5, 연합)**
 - 북한의 대표 도시 평양도 외국인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른 것 같다고 최근 방북했던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전언, 이들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특성상 북한의 일반 주민보다는 대남사업 부서의 관계자나 호텔·식당 종업원 등 ‘특수 계층’을 만나기 때문에 평양의 일반적인 물가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물가가 오른 것 같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임.

- **北, 여성·출산건강 5개년계획 추진중(2008년 8월호, 조국)**
 - 북한의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가 여성 건강 및 출산관련 문제의 해결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5~09년 전략계획”



이라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

- ‘조국’ 8월호에 따르면 이 5개년 계획은 ‘봉사에로’라는 명칭을 가졌으며, 이 구호는 ‘봉(봉사 문제), 사(사춘기 문제), 에(에이즈 문제), 르(류(유)산문제), ㄱ(옹호활동 문제)’의 5개 글자와 자모를 조합한 것이라고 알려짐.
- 북한의 가족계획협회는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사무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재생산(출산) 건강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

● **北, ‘아리랑’ 공연 대내외에 적극 선전(8/5, 조선중앙방송; 8/4, 조선중앙통신; 8/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4일 시작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대내외에 적극 선전
- 조선중앙방송은 5일 아침뉴스를 통해 아리랑의 개막 공연 소식을 전하며 “인류문화예술의 귀중한 재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모여 온 수만명의 각 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쳤다”고 소개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밤 “출연자들은 우아한 음악무용과 기백 넘친 집단체조, 특대형 영사막과 배경대, 화려한 전광장치와 레이저 조명 등으로 거대한 입체적 공간에 황홀한 예술의 신비경을 펼쳐놓았다”고 전언
- 북한은 또 평양에 상주하는 미국 AP통신의 TV영상뉴스 공급 자회사 ‘APTN’이 4일 평양에서 공연 실황을 편집해 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北, ‘세계 모유수유주간’ 행사 개최(8/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세계 어머니젖먹이기(모유수유)주간(8.1~7)’을 맞아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보건간부와 북한 주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행사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여학생, 중국어 세계대회 우승(8/4,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양외국어대학의 외국어학원 6학년 최혜영·최지혜 학생이 7월 15~30일 중국 지남(濟南)시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중학생(중,고교생) 중어경연’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北함남·황남에 미지원 밀 분배(8/4, 좋은벗들 소식지)**

- 함경남도과 황해남도 일부 지역에서 미국이 지원한 밀과 옥수수가 분배되기 시작해 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이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4일 보도



● **北보건성, 말라리아 최근 재발(8/4, 조선신보)**

- 북한 보건성의 리봉훈 부상이 “조선(북한)에서 오래 전에 없어졌던 말라리아가 다시 발생했다”고 발표, 리 부상은 7월 30일 평양에서 처음 열린 ‘세계 말라리아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주변나라들에서 말라리아 발생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고 “화학예방법을 비롯한 각종 예방수단을 총동원해 말라리아를 결정적으로 퇴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정부, 6자 합의 대북 에너지설비 전달(8/8, 통일부)**

- 통일부는 8일 “지난해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중 일부를 최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발표
- 이번에 제공된 물량은 환강 600t과 박강판 80t으로, 정부는 8월 2-6일 북한 평양과 남포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해 이들 물자를 인도 약속했다.
- * 정부는 한국 지원분(중유 20만t 상당) 가운데 이번에 전달된 자재를 포함, 현재까지 중유 12만4천t에 해당하는 물자를 지원

나. 북·미 관계

● **北, 美 연합공군훈련에 한국 참가 비난(8/10, 우리민족끼리; 8/9, 통일신보)**

- 북한 언론매체는 남한 공군이 미국 네바다주의 벨리스공군기지에서도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8.9~23)에 16년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관계 악화를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논평에서 “파탄에 직면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분위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남한이 미국 현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 통일신보도 9일 레드 플래그 훈련이 “조선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전쟁연습”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남관계가 과거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

● **北,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멸된 조직... 美는 악용말라(8/8, 인민군판문점대표부)**

- 판문점 대표부는 8일 발표한 상보(詳報)에서 “미군 측은 저들의



(남한 내) 무력증강과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이 폭로되게 되자 1956년 6월9일 자기 측 지역에 있던 중립국 시찰소조를 강제로 추방했고 1957년 6월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는 정전협정 제13항 ㄱ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결국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됐다”고 주장

- 대표부는 “이런 미국이 오늘에 와서 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성원을 판문점에 그대로 붙들어두고 그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는 유치한 연극을 벌이고 있다”며 미군이 이들을 동원해 화요일마다 판문점에서 회의를 갖고 군사분계선 상에서 편지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대표부는 이어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

● **北, 美, 6·25전쟁 민간인 학살 사죄 주장(8/8,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8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은 조선전쟁(6.25전쟁) 시기 감행한 민간인 대학살 만행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또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침략자들을 ‘혈맹’으로, ‘우방’으로 받들면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송두리째 섬겨 바치고 있다”고 비난

● **北, 美 BGN 지명 표기 오류 비난(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한 데 이어 백두산과 천지를 중국령으로 표기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지명표기는 예로부터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기관들이 지명들을 제멋대로 쓰고 있는 데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분쟁을 조성해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어리석은 타산이 깔려있다”고 언급

● **北, 미국 인권특사 개성방문 거부(8/7, 통일부)**

- 북한이 다음주 방한하는 제이 레프코위츠(Lefkowitz) 미국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발표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레프코위츠 특사가 방한기간인 8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7월 28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초청장 발급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특사의 방문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절했다”고 언급



- 북한은 거부 사유에 대해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 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北 “美식량 배 도착했다” 첫 보도(8/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국이 기증하는 식량을 실은 두번째 배가 4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간략히 보도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가운데 1차분 첫 항차인 밀 3만 7천t은 지난 6월29일 남포항을 시작으로 함경남도 흥남항과 함경북도 청진항에 분산 입항했으며, 이번에 도착한 1차분 2번째 항차는 옥수수 2만3천t으로 이뤄졌음.

다. 북·중 관계

● **中, 北과 접한 백두산 남쪽 정식 개방(8/10,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중국이 백두산 등산로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접하고 있는 남쪽 등산로를 정식 개방한 것으로 확인, 10일 중국 지린(吉林)성 산하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리위는 8월 6일 백두산 남쪽 산문에서 등산로 정식 개방 행사를 가졌음.
- 남쪽 등산로는 중국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북, 서, 남 3개 등산로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접한 관광코스, 지금까지 간간히 비공식적으로 관광객의 입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정식 개방은 이번이 처음임. 특히 백두산 남쪽 등산로는 너비 200m, 깊이 170m, 전장 20km에 달하는 압록강대협곡을 볼 수 있는 관광코스, 중국에 있는 3개의 백두산 등산로 가운데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

● **北김영남, 中지도부와 3차 연쇄회동(8/10, 연합)**

- 북한의 지도자급 인사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9일 귀국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3일의 베이징(北京) 체류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3명의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갖는 바쁜 일정을 보냄.
-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가운데 후주석을 포함해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9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3명과 연쇄 접촉을 가진 인사는 김 상임위원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짐.

● **中시진핑, 정세 어떻게 변하든 北과 친선(8/9,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불패의 이 친선이 끊임없이 발전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 상임위원장과 담화에서 또 "조선 당과 정부는 중국이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줬다"면서 "조선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 개막행사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중국 정부와 인민에 대한 힘있는 지지"라고 강조

라. 북·러 관계

● 北김영춘, 러시아와 협력 긴밀해질 것(8/8, 조선중앙방송)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와 수교 60돌을 맞아 교류 및 상호협력 확대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8월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과 2002년 러시아 방문을 기념해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개최한 연회에 참석, "조(북)·러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맞는 올해 쌍방의 깊은 관심과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호혜적인 협조와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에서 호상(상호)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이라고 강조
- 이날 연회에 김 부위원장과 함께 박의춘 외무상, 박경선 노동당 부부장, 궁석용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 방북(8/5, 조선중앙통신; 8/7, 조선중앙방송)

-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5일 방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러시아 철도공사는 북한의 라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에 17억5천만 루블(미화 약 1억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진항의 화물접수를 위한 컨테이너 처리장도 건설할 예정
- *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은 지난 3월에도 방북, 북한과 라진-하산간 철도 연결과 라진항 개선 사업 등을 논의하고 합의 문건을 채택
-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러 두만강 국경선 협상 착수(8/6, 러시아외교부)

- 두만강(17.5km)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선 재확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6일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2008년말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 질서에 관한 새 조약안



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합의

- 양국이 국경선 재확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000년 평양에서 두만강 하류 국경확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 이후 8년 만임.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85년 북한과 조(朝)-소(蘇) 국경조약을 체결했고 1990년 국경 설정 의정서에 서명
- 두만강 하구는 여름철 수위가 높을 때는 하상이 이동, 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겨울철 수위가 낮을 때는 새로운 모래밭이 드러나면서 북·러 양측이 국경의 기산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따라 양국은 2000~2003년 국경 공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두만강 국경표지 유지 실태와 지형 변경에 대한 실사를 벌여 수로가 바뀌고 1990년 세워 놓았던 국경표지도 상당수 유실된 것을 확인됨.

● 북·러, 라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8/7, 조선중앙방송)

- 함경북도 라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간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6일 '라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은 이날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라진-두만강 철도 개보수와 이달 중 라진항 컨테이너 처리장 착공식 개최에도 합의
- 평양 회담에는 북측의 김 철 철도성 부상과 러시아의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철도공사 부사장,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임시대리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철도임대 계약은 '라선(라진·선봉) 국제집합(컨테이너)수송 합영회사'와 북한 철도성 산하 동해철도회사 간에 이뤄졌음.
- 조선중앙방송은 회담에 앞서 양측이 라선 국제집합수송합영회사 이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 합영회사 사장이 임명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

마. 북·일 관계

● 北, 日 국교정상화 전 원폭피해자 원호 주장(8/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계성훈 서기장은 "(북·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일본이 조선(북한)에서의 피해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문서를 전면공개하고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8.11~12, 중국 선양)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두 편의 기사를 잇따라 내고 "조선은 조일(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 측이 원자탄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
- 신문은 북한에서 확인, 등록된 원폭 피해자 1천911명 가운데 현재



382명이 생존해 있다며 실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자료나 문서가 없어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

바. 기타외교 관계

● 이탈리아서 北 도서미술전 개최(8/10, 평양방송)

- 이탈리아·북한문화협회가 7월 25-27일 이탈리아에서 북한 도서미술전시회를 열었다고 북한의 평양방송이 10일 보도, 이탈리아의 국제문화축제 기간에 열린 이 전시회엔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함께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들이 소개됐다고 방송은 설명

● 평양교예단 유럽 개막공연 매진(8/9, 미국의소리방송)

- 첫 유럽 순회공연에 나선 북한 평양교예단이 개막부터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9일 보도
- 미국의소리방송은 8월 1일 평양교예단 개막공연이 열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립 카레극장 1천600석이 매진됐다고 50여 명의 곡예사가 고난도 동작을 선보일 때마다 객석에서 환호가 쏟아졌다고 보도, 평양교예단은 8월 암스테르담 공연(8.1~31)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9.4~28)와 뒤셀도르프(10.2~15)에서 계속 공연할 계획

● IPC, 北에 장애인올림픽 참가 권유(8/8,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북한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9.6~9.17) 참가를 권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스테피 클레인 IPC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
- 클레인 대변인은 지금껏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고, 올해 대회를 앞두고도 7일 현재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장애인들의 발전을 위해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다"고 언급
- *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2007년 8월 방북한 중국 장애인연합회 대표단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측은 올해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지난해 9월 27일 보도

● 카스트로, 北과 관계강화 강조(8/8, 평양방송)

- 피델 카스트로 전(前)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강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 8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카스트로 전 의장은 8월 23일과 25일 쿠바공산당 기



관지 그란마에 기고한 ‘두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쿠바는 현재 조선(북한) 정부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

● **폴란드 수교 60주년 전시회 개막(8/7, 조선중앙통신)**

- 폴란드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남포시 인민위원회와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폴란드 체육선전물 및 사진전이 6일 남포극장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이날 개막식에는 리길춘 남포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로만 이바슈케비츠 폴란드 대사가 참석

3. 대남정세

● **금강산 1차 철수대상 11일 전원 귀환(8/10, 연합)**

- 북한이 금강산 1차 철수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 면회소 인원들이 11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
- 북측은 지난 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9일 추방조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1차 철수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한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으로 지목, 북측이 추방 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 직원은 2명, 금강산 면회소 관계자는 9명임. 이들 9명은 각각 현대아산 3명, 현대건설 4명, 동의건축디자인 소속 2명으로 모두 민간인이며 정부 당국자는 현재 한명도 체류하고 있지 않음.
- 관광공사는 11일 시설 관리인원 철수와 함께 면세점 물건도 빼올 예정임.
- 또 11일에는 10명 내외가 철수할 계획이며 오는 14일까지 모두 148명이 철수해 금강산에는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인원 117명 정도만 남게 될 예정

● **북한주민 1명 서해상으로 월남(8/9, 연합)**

- 북한 주민 1명이 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김포 인근 해상을 통해 월남, 정부 소식통은 9일 “이 남성의 귀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北, 금강산 南당국인원 전원 추방(8/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9일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8월10일부터 실시한다”면서 “1차적인 추방



은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해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발표

- 북한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8월 3일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남측의 현장 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9일 북한의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가 “계획대로 특별담화에 밝힌 군사적 조치들을 정식 실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군부”에 보냈다고 일제히 보도, 이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당국인원 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추방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발표

● 전교조 訪北 신청, 통일부 불허(8/7, 통일부)

- 통일부는 7일 전교조가 8월 10~14일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라기보다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라고 신청을 반려한 것” 언급

● 대전코레일 9월 30일 개성관광열차 운행(8/7, 연합뉴스)

- 코레일 대전지사는 추석을 맞은 실향민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9월 30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을 다녀올 수 있는 ‘고려 500년 도읍지 개성기차여행’ 상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

● 北에 7월분 금강산 관광 대가 전달(8/7, 문화일보)

-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전까지의 7월분 금강산 관광 대가로 69만여 달러(7억여 원)를 이달 초 북한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문화일보가 보도
- 문화일보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8월 1일 금강산 관광대가로 69만 5250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 지난달 1일부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11일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1만380명. 관광 대가로 1인당 평균 67달러를 지급한 셈

● 유엔사, 북한군 시신 1구 8일 송환(8/7, 연합뉴스)

-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유엔군사령부가 8일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군 시신 1구를 북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 유엔사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에 시신 송환 의사를 전했고 북측은 6일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귀환국군포로 정착 지원책 마련키로(8/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제15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고 귀환 국군



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집중 논의

- 문성묵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통일부, 5일 금강산서 21명 자진철수(8/6, 통일부)

- 정부는 6일 금강산에서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 “어제 금강산에서 업체 관계자 21명이 자진 철수했다”고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측의 요구에 의한 추방은 아니다”라고 언급
- 5일 철수한 인원은 금강산 골프장 관련 사업자인 에머슨퍼시픽 직원 16명, 농협 직원 1명, 기타 협력업체 관계자 4명 등 21명임. 6일 오전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내국인 227명, 외국인 508명 등 735명이 체류 중임.

● 전북도, 北 돼지공장 관리 양호 확인(8/4,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의 지원하에 북한 남포시에 설치한 돼지사육 농장의 관리 및 사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발표
- 전북도는 김승수 대외협력국장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유창희 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직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 남포시 대대리 ‘우리민족 돼지사육 농장’을 둘러봤으며 이같은 현지실태를 확인했다고 설명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11일까지 핵 검증계획 제출 않을 듯”(8/10)

- 미 백악관은 10일 북한이 11일까지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11일부터 가능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도 연기할 것임을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한과 핵프로그램 검증계획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신고내역 검증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중국을 방문중인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 와일더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 검증체계문제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아직 북한이 내놓은 것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시 “北 핵확산, 우라늄농축 우려 해소해야”(8/7)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사전 배포한 태국 방문 성명서에서 테러위협과 관련, 동북아시아 국가들 모두에 긴급한 문제인 북한의 핵위협과 그동안의 북핵 6자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최근 핵활동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지금 북한은 우리가 핵신고서를 검증하고 핵확산과 우라늄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형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반드시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인 5개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억압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이어 한국 방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평양정권이 가혹한 통치를 끝내고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자유와 번영 그리고 희망의 가장 강력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무역”이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 北核 검증시 핵확산 실태도 검증 요구(8/6)

- 미국은 북핵 검증 절차에서 북한이 핵신고에 포함시키지않은 핵무



기와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외국으로의 핵확산 실태 등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자체 입수한 검증절차 초안을 인용, 6일 보도

-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핵계획 전모를 파악하기위해 단호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됐던 오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시한 앞둔 핵 검증협약..북미 신경전(8/5)

-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효 시점인 오는 11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북한과 미국간 검증 협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달 12일 6자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미 양자협약의 형식으로 진행해온 비핵화 2단계 마무리 협의를 6자 차원으로 환원하는 ‘7.12합의’를 발표했지만 현안인 핵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보하고 45일이 지난 8월 11일부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서명을 거쳐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한다’는 서면통지를 의회에 보냄으로써 해제 조치를 발효할 수 있지만 북핵 검증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검증활동 개시를 발효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음.

● “北, 손실분 포함 44kg 플루토늄 생산”(8/5)

- AP통신은 이날 ‘이란, 북한, 인도 핵프로그램 들여다보기’ 제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미 고위관리가 최근 북한이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손실된 것을 포함해서 44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AP는 그러나 북한이 생산했다는 44kg의 플루토늄 양이 북핵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내역서에 근거한 것인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1만9천페이지 분량의 핵시설 운영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인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 연합공군훈련에 한국 참가 비난(8/10)

- 북한 언론매체는 남한 공군이 미국 네바다주의 벨리스크공군기지에서도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8.9~23)에



16년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관계 악화를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북한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논평에서 “파탄에 직면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분위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남한이 미국 현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음. 이 매체는 이명박 정부에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 의지가 꼬물만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거듭되는 반공화국(반북) 전쟁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전쟁위협은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음.

● 北통신, 美BGN 지명 표기오류 비난(8/8)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한 데 이어 백두산과 천지를 중국령으로 표기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중앙통신은 이날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지명표기는 예로부터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기관들이 지명들을 제멋대로 쓰고 있는 데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분쟁을 조성해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어리석은 타산이 깔려있다”고 밝혔음. 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조선반도를 일본의 통치지역으로 인정하고 일제와 함께 ‘태프트-가쓰라 협정’을 조작하던 때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지적.
- 중앙통신은 미국 BGN의 한반도 지명표기 오류에 대해 “세계지명과 지도를 연구한다는 미국의 기관들이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얼뜨기 집단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선의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음.

● 美 “北테러지원국 해제엔 강력한 검증체계 필요”(8/8)

-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나흘 후부터 행정절차상 가능해지는데 대해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음.
-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 의회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45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45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음.



- “WFP, 5억8천만 달러 대북구호 프로그램” <유엔> (8/7)
 -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달부터 62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긴급구호사업(EMOP)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이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WFP는 대북 긴급구호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보다 폭넓은 기부를 받기 위해 대북 구호복구사업(PRRO) 예산안도 대폭 수정, 보충하고 있음.
 - WFP는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평양, 량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의 131개 군에서 구호활동을 펼 것이라며 곡물 47만 1천, 콩 5만 4천, 기름 1만 6천, 갈습 강화 식품 9만 1천을 지원할 예정.

- 美명명탈북자 ‘中강제복송’ 항의 단식농성(8/7)
 -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검거 및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 시위를 벌이고 있음.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HR)의 보호를 받다가 지난 3월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조진혜(21.여)씨는 지난 2일부터 워싱턴 D.C.내 주미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검거 및 강제복송 중단,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 부여, 탈북자들의 제3국행 허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음.

- “美의회-행정부, 北 테러지원국 자동해제 논란” (8/6)
 - 미국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 문제를 놓고 미 의회의 반대입법이 없는 한 오는 11일 자동해제된다는 견해와 행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로 나뉘어 논란을 빚고 있음.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국무부측은 북한이 핵검증 의정서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면서 해제의 발효엔 당초의 의회에 보냈던 해제방침 통보 외에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의회측은 해제방침 통보를 번복하는 통보를 행정부가 다시 보내지 않는 한 45일간의 통보기간이 끝나는 11일 해제조치가 자동발효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워싱턴 현지시간) 보도.
 -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 매리법대 부학장도 미 의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시계를 중단시키려면 행정부가 해제 통지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통지를 의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해 부시 행정부가 오는 11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검증의정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해제된다는 견해라고 RFA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핵관련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제 불가라는 입장이며 국무부는 “45일간이라는 통보 기간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음.

● 北통신 “美식량 배 도착했다” 첫 보도(8/5)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국이 기증하는 식량을 실은 두번째 배가 4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가운데 1차분 첫 항차인 밀 3만7천t은 지난 6월29일 남포항을 시작으로 함경남도 흥남항과 함경북도 청진항에 분산 입항했으며, 이번에 도착한 1차분 2번째 항차는 옥수수 2만3천t으로 이뤄졌음.

● “부시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된 실패작”(8/5)

- 베이징 특파원 등을 지낸 마이클 치노이 전 CNN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는 5일 출간한 ‘멜트다운(Meltdown): 북한 핵 위기의 속 얘기’를 통해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내부 강온파간 대립으로 인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자멸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 북한은 이같은 부시 행정부의 자멸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 37~38kg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한편 지하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었고,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북한 정권의 기만에 속았다는 인식 아래 2002년 기존의 핵협상을 무력화시켰으며, 이후 외교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과 접한 백두산 남쪽 등산로 정식 개방(8/10)

- 중국이 백두산 등산로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접하고 있는 남쪽 등산로를 정식 개방한 것으로 확인됐음. 10일 중국 지린(吉林)성 산하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리위는 지난 6일 백두산 남쪽 산문에서 등산로 정식 개방 행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남쪽 등산로는 중국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북, 서, 남 3개 등산로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접한 관광코스로, 지금까지 간간히 비공식적으로 관광객의 입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정식 개방은 이번이 처음임. 특히 백두산 남쪽 등산로는 너비 200m, 깊이 170m, 전장 20km에 달하는 압록강대협곡을 볼 수 있는 관광코스로 중국에 있는 3개의 백두산 등산로 가운데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왔음.

● <올림픽> 北 김영남 위원장 귀국(8/9)

-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 김영남 위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귀빈실을 통해 주중 북한대사관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배웅 속에 북한 고려항공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음. 김 위원장은 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환영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 등 짧은 만남을 가졌음.

- 7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이날 후진타오 주석을 예방해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개별 회동을 가졌음.

●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 후진타오 예방(8/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음.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후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보도.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영남 위원장에게 환영을 표시했음.
- 후 주석은 “최근 중-조(中-朝)관계가 크게 발전했으며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중-조 우호의 해’를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통을 이어가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중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의 자랑일 뿐 아니라 전체 아시아와 세계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 “北 IT산업 中예속 막기 위해 남북 통신협력 강화해야”(8/6)

- 북한의 IT산업이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통신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아주대 사회과학부 홍승원 교수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방송통신학회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 이같이 강조하고 “IT분야 대북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 개혁·개방 모델 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8/5)

- 베이징 특파원 등을 지내며 북한을 14차례나 방문해 취재한 마이클 치노이 전(前) CNN 아시아 담당 수석기자는 최근 출간한 저서 ‘멜트다운(Meltdown):북한 핵위기의 속앰기’에서 그동안 김 위원장이 중국의 상하이, 선전 등지를 방문해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칭찬하며 중국식 모델에 관심을 보였지만 2007년말에 그의 관심의 초점은 베트남의 경제개혁 경험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작년 10월 초 북한과 베트남 간 50년 외교관계 사상 최



고위급 인사인 농 득 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일 총리가 작년 10월 베트남을 방문했다는 것.

- 치노이는 30대 후반인 장남 정남은 지난 2001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위조여권을 갖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후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기회에 크게 타격받았으며, 2008년 초반까지만 해도 둘째 정철과 셋째 정운도 김 위원장의 믿을만한 후계자로 부상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음.
- 치노이는 지난 2006년 CNN에서 퇴사한 뒤 현재 로스앤젤레스 태평양국제정책위원회에서 한반도 안보담당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음.

● 후진타오, 남북한 등 5개국과 양자정상 회담(8/4)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베이징올림픽이 개막되는 8일과 9일 이틀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5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후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 외에도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져 남북한에 대해 배려를 할 계획임.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서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다고 소식통들이 말했음.
- 후 주석은 또 이 기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각각 중-미, 중-일, 중-러 정상 회담 계획.

라. 일·북 관계

● 北 신문 “日 영토팽창 정책 엄중한 단계”(8/10)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해외팽창을 노린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한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 10일 입수된 노동신문 최근호(8.3)는 ‘국제적 경계심을 자아내는 위험한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라는 글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해외진출 적극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은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침략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 이어 신문은 “일본은 해외침략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우리나라를 첫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일본국토지리원이 2만5천분의 1 축척의 독도 정밀지도를 제작해 내돌린 것, 소·중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 등은 재침 흥계의 발로”



라고 주장.

- 신문은 “일본은 독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땅까지 저들의 것이라고 우겨대며 교과서에 왜곡서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영토팽창 정책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北日 두달만에 대화재개…납치문제 초점(8/7)

- 북한과 일본 양국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워킹그룹 회의 재개를 위한 실무자 협의 예정. 이번 협의에는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의 송일호 조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 예정.
- 이번 협의에서는 6월 회의에서 합의했던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의 일부 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일본항공 여객기 요도호 납치범의 송환 문제도 협의될 것으로 보임.

마. 러·북 관계

● 北김영춘 “러시아와 협력 긴밀해질 것”(8/8)

- 북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와 수교 60돌을 맞아 교류 및 상호협력 확대를 강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과 2002년 러시아 방문을 기념해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개최한 연회에 참석, “조(북)·러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맞는 올해 쌍방의 깊은 관심과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호혜적인 협조와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에서 호상(상호)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새 세기 조·러 관계 발전을 추동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 연회를 마련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임시대리대사도 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두 나라 관계 발전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평한 뒤 “러·조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맞는 올해 두 나라 사이 전통적인 친선, 선린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 기타

● “印, 이란행 북한機 영공통과 승인 돌연취소”(8/8)

-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지난 7일 미얀마 만달레이 공항을 이륙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갈 예정이던 북한 국



적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황급히 취소했다고 8일 보도. 북한은 당초 자국 민간항공기가 인도를 통과해 테헤란으로 향할 것이라며 인도 민간항공총국(DGCA)에 영공 통과 신청을 했음. 이에 대해 DGCA는 민간항공 규정에 따라 4~9일 사이에 영공을 통과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줬음.

- 그러나 미얀마 만달레이 공항에 기착했던 북한 국적기가 7일 오후 1시 공항을 이륙하기 직전 인도 총리실(PMO) 관계자가 갑작스레 DGCA측에 이 항공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음. 이 메시지가 콜카타 항공통제국을 거쳐 양곤 항공통제국으로 전달 되면서 이 북한 국적기는 만달레이 공항을 이륙하지 못했고 DGCA는 추후 정식으로 승인 취소를 통보했음.
- 북한 고려항공 소속의 러시아산 IL-62 기종인 것으로 알려진 이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로 분류되지만 북한 정부의 전세기일 가능성이 높고 여객기인지 화물기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IPC “北에 장애인올림픽 참가 권유”(8/8)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북한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9.6~9.17) 참가를 권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스테피 클레인 IPC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 RFA에 따르면 클레인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고, 올해 대회를 앞두고도 7일 현재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장애인들의 발전을 위해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 클레인 대변인은 또 “북한이 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을 돕도록 좋은 스포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며 “북한이 (IPC)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면 북한 내 장애인 체육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물질적 지원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北, 올해 곡물 170만t 증산 전망”<FAO>(8/6)

- 6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FAO는 세계 식량 현황을 종합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 120만t에서 올해 160만t, 옥수수는 130만t에서 200만t, 그 외 잡곡류는 150만t에서 210만t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북한의 올해 곡물 수입은 쌀의 경우 70만t으로 예상돼 지난해에 비해 30만t 늘어나지만 옥수수와 잡곡은 지난해 각각 70만t에서 10만t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음.
- FAO는 국제 식량(육류 포함)가격 지수를 1998~200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08년 4월 현재는 218이며, 특히 쌀을 비롯한 곡물 가격 지수는 284로 급등했다고 밝혀 북한의 곡물수입 여건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레나테 홍, 남편 상봉위해 방북(8/5)

- 북한인 남편 홍옥근(74)씨와 재회를 47년간 기다려온 독일인 레나테 홍(71) 할머니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5일 평양에 도착해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레나테 할머니는 북한 적십자사의 초청으로 두 아들 페터(48), 우베(47)씨와 함께 지난달 24일 에어차이나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방북했다.
- 독일 예나시에 사는 레나테 할머니는 1953년 동독에서 유학중이던 남편과 1953년 결혼했으나 1961년 북한이 동유럽 지역에 파견했던 유학생들을 소환함에 따라 남편과 이별한 후 만나지 못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조지아주 8월15일 '한국의 날' 지정(8/9)

- 조지아주정부에 따르면 서니 퍼듀 주지사는 “조지아주는 10만 명 이상 한인이 거주하는 정착지가 되었고, 한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인들은 조지아주에 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일부분으로 조지아주와 한국 간의 경제교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퍼듀 주지사는 “2008년 8월 15일에는 한국과 조지아주 그리고 미국 내 한인들이 한국의 독립 63주년을 기념하게 된다”며 “이에 8월 15일을 조지아주 내의 '한국의 날'로 선포하며 우리 시민들이 경축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조지아주의 '한국의 날' 지정·선포는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선포식은 15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 “美정부, 한인 이산상봉 보고서 작성”<RFA>(8/7)

- 미국 행정부가 재미동포와 북한 가족 간 이산상봉을 돕기 위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7일 보도. 이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보고서에는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바람직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안과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안이 포함됐으며,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 RFA에 따르면 미 의회도 법안 상정을 주도했던 칼 레빈 상원 군사



위원장(민주, 미시간)의 보좌관 1명을 지난 3월 북한에 보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 또한 미 의회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상봉 관련 대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북·미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정상, ‘北 인권개선’ 정면 제기(8/6)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북핵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음.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 韓, 美의 5대 교역국...작년 784억달러 교역(8/6)

- 지난 2007년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784억달러를 기록, 한국이 단일국가로선 미국의 5번째 교역대국의 자리에 올랐다고 미국 국제무역위(ITC)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간된 ITC의 ‘2007년 무역보고서(The Year in Trade 2007)’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교역 총규모는 784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음.
- 미국의 대한(對韓)수출은 2006년보다 7.2% 증가, 330억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보다 1.5% 상승한 454억달러로 나타나 양국 교역에선 한국이 124억달러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음.
- 미국의 주요 대한수출품목은 항공기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기계류, 컴퓨터 칩 등이었고,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은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및 관련장치, 컴퓨터 칩 등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내년부터 美서 대학생 연 5천명 연수취업(8/5)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한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 실시가 목표”라고 말했다.
- WEST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 및 졸업 직후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5개월 간 자비로 어학연수를 한 뒤 12개월 간 인턴취업을 하고 한 달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총 선발인원은 우리 정부 추천인원을 포함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결정하며 최종 선발 인원에는 대해서는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미국 추천기관이 연수 및 취업기관 연결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美, 두만강-압록강 섬들도 분쟁지역 분류 오류(8/5)



- 미 국무부 주도로 작년에 지명위원회(BGN)의 승인을 받은 ‘주권 미지정’ 코드 분류 제안서에 따르면 세계 31곳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한국의 경우 독도와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 등 3곳이 분쟁지역인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음.
-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의 대상 지역이며 압록강과 두만강의 여러 섬과 모래톱들은 북한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임. BGN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압록강은 중국령으로,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령으로 표기하는 등 문제 드러냄.

● 참전용사들도 美의회에 한미FTA 처리촉구(8/5)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내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들로 구성된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회연맹(USFKVO)’이 최근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음.
- 5일 미 의회에 따르면 USFKVO는 청원서에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협정이라면서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청원서를 FTA 주관 상임위원 세입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미 의회는 밝혔음.
- USFKVO는 미국내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단체인 KWVA와 KVA가 지난 2004년 12월4일 전체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를 아우르는 기구로 공동 설립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6자회담 진전 협력’ 합의(8/9)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및 외교장관 회동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2단계 검증 단계에 들어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후 주석의 지도력 영향이 크다”면서 “북핵문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성공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후 주석도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후 주석은 그러면서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비록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남북한이 대국적으로 대응하고 자주 의사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중국측에서 왕후닝(王浩<삼수변에 扈>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링지화(令計劃) 중앙관공청 주임,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음.

● 한·중 정상, 금강산 피살사건 의견교환(8/9)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및 외교장관 회동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양 정상은 또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 향후 후 주석의 방한 때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
- 특히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후 주석은 금강산 피살 사건이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올림픽기간 中서 한국 근현대사 사진전 열린다(8/8)

-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등 근현대사를 소개하는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말 의병사진과 을사늑약 강제 삽화, 임시정부 요인 환국, 한·중 국교수립, 2002 월드컵 등에 관한 각종 사진자료 107점이 선보임.
-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진전을 기획했다”며 “특히 올림픽 기간 중국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발전상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독립기념관은 이후 한국문화주간(9월말~10월초)에는 상하이시 주요 지역 순회전시도 계획.



● 인천세계도시축전 中 관광객 유치 ‘가속페달’(8/6)

-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안상수 시장과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장시룽 중국 국가여유국 서울지국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은 서울지국을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은 2010년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키로 했음.

다. 한·일 관계

● 權주일대사 “日에 잘못 철회하는 용기 기대”(8/5)

-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이 중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달 15일 일시귀국했다 3주만인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귀임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의 예에서 봤지만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음.
- 그는 “상당히 착잡하다”고 귀임소감을 밝힌 뒤 “무너진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가 내게 주어진 새 과제인데 일본 측에서 좀 더 성의있게 대한민국을 보다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해 신뢰회복에 노력해주기를 기다린다”고 일본의 변화를 촉구했음.

● 日 국민 70% 이상 “독도는 일본 땅”(8/5)

-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지난 2~3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3.7%에 달했음. 특히 40대와 60대 이상 남성과 50대 여성의 연령층에서는 80% 이상에 이르렀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1%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2%로 조사됐음. 또 응답자의 75%는 “일본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시했음.

라. 미·중 관계

● 후진타오, 부시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8/1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중난하이에서 오찬을 함께 했음.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후 주석은 부시대통령에게 9일 베이징시내의 관광명소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 피습 사건 사망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시했음. 이에



앞서 부시대통령은 오전 베이징 시내의 한 교회를 찾아가 예배에 참석했음.

- 부시 대통령은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있으며 하느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떤 국가, 남자든 여자든 종교적 사랑의 영향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중국에 종교의 자유를 촉구했음.

● <올림픽> 부시, 베이징서 예배..‘종교의 자유’ 역설(8/10)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몇시간 앞두고 “어떤 나라든 종교의 자유의 힘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아버지인 부시 전 대통령과 부인 로라 부시 여사, 딸 바버라양과 함께 베이징 관제탕(寬街堂)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로라와 나는 방금 이곳 베이징에서 예배를 보는 기쁨과 특권을 누렸다”면서 “하느님은 평등하며 사랑이며 국가가 아니며 남자와 여자는 종교를 사랑하는 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에서는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볼 수 있으며 수백만명의 중국 사람들은 당국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교회’로 불리는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몰래 예배를 보고 있음.

● <올림픽> 부시, 중국 인권문제 연일 비판(8/9)

- 부시 대통령은 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4박 5일 일정의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을 통해 중국이 더 많은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여기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행은 양심을 얘기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믿음에 확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환경 문제나 아프리카 발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무도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또 10일 베이징 시내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종교의 자유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며 몇 시간 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또 다시 인권 문제와 종교 문제를 거론할 계획임.

● 부시, 베이징 도착...訪中일정 시작(8/7)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각) 아시아 지역 마지막 순방국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 중국 방문 일정에 착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8일 오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 등 언론들은 전했다.



● 美, 신장위구르 폭탄테러 강력 비난(8/5)

-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갈레고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현장에서 혐의자들을 붙잡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음.
-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변경도시 카스(喀什)에서는 4일 위구르족 청년 2명이 아침 구보 중이던 무장경찰 70명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한 뒤 사제 수류탄 2발을 던져 16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음.

마. 미·러 관계

● 러, 대미외교 ‘강은’ 양면전술(8/5)

- AP 통신은 4일 러시아 언론을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과거 냉전시대의 동맹인 쿠바와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푸틴 총리는 러시아-쿠바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쿠바를 방문한 정부 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각료들에게 “우리는 쿠바 및 다른 국가들에서 우리의 위상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고르 세친 부총리 등 러시아 대표단은 최근 쿠바 지도부와 만나 에너지, 농산물 운송, 의료, 통신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었음.
- 러시아 RIA-노보스티통신은 고위 국방관료 출신의 지리정치문제 연구소 레오니드 이바쇼프 소장의 말을 인용, “서구가 코카서스와 발트해 연안의 국가들,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 주위에 완충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해외 군대 주둔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이런 강경 발언들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계획에 맞서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불과 150km 떨어져 있는 쿠바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반면 러시아의 새 나토 특사는 나토가 러시아 안보를 보장한다면 나토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며 회유책을 들고 나섰다.

바. 기타

● 李대통령, 카자흐 발하슈발전소 수주협력 요청(8/9)

-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에너지분야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양국간 에너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신규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자고 제안했음.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간 에너지개발



협력사업의 첫 사례인 잠발해상광구 지분인수 계약이 지난 5월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대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양국이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되게 발전해 있다고 평가한 뒤 카자흐스탄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이 석유화학, IT(정보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그루지야 전쟁 이틀째 사상자 속출(8/9)

- 러시아 지상군 관계자는 9일 “그루지야군이 남오세티야에 대해 박격포 공격을 퍼부어 러시아 평화유지군 병사 3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지금까지 1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밤새 22명의 부상병들이 북오세티야의 블라디카브카즈로 후송됐으며 나머지 부상 병사들에 대한 후송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남오세티야 예두아르트 코코이티 대통령은 전날 교전으로 약 1천 4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그루지야 내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군사시설 3곳과 BTC 송유관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유럽행 원유 선적 시설이 있는 흑해 연안 포티 항을 재차 공습했다”고 밝혔다.
- 현지 방송인 ‘루스타비 2’ 채널은 마르네울리 공군기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고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전날 밤 군인을 포함 30명의 그루지야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또 일단의 러시아 특수군이 츠히발리 외곽에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

● 러-그루지야 사실상 전쟁 시작(8/8)

- 그루지야와 그 자치 영토인 남오세티야 공화국 간 영토 분쟁이 결국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야를 지원하는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이어졌음. 러시아 전투기들이 8일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에서 25km 떨어진 바지야니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그루지야 관리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지만 건물 수채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 루지야는 이날 3시간 동안 한시적 휴전을 선언한 뒤 자신들이 장악한 츠히발리에서 여성들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남오세티야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사실상 전쟁 발발을 인정했음.

● 한-알제리 정상, 자원-플랜트 협력방안 논의(8/8)

-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 양 정상은 이날 오후 베이징 리젠트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난 2006년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 범위를 기존의 경제,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뿐 아니라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분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으며, 특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알제리의 제7차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입찰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알제리 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한-투르크멘 정상, 자원·에너지분야 협력키로(8/8)

- 이명박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8일 중국 베이징(北京) 리젠트 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문제를 논의.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지난 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양 정상은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양국 선수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문화·체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상간 상호 방문을 통해 친분과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참고 1] 역대 한미 정상회담 일지(연합뉴스, 8/6)

- ▲ 1952.12. 2~12.5 =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방한,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
- ▲ 54. 7.30 = 이 대통령 방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
- ▲ 60. 6.20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 허정 국무총리 면담
- ▲ 61.11.14 =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 방미,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
- ▲ 65. 5.18 = 박 대통령 방미, 존슨 대통령과 회담
- ▲ 66.11. 2 = 존슨 대통령 방한, 박 대통령과 회담
- ▲ 68. 4.17 = 박 대통령 방미, 존슨 대통령과 회담(호놀룰루)
- ▲ 69. 8.22 = 박 대통령 방미, 닉슨 대통령과 회담(샌프란시스코)
- ▲ 74.11.22 = 포드 대통령 방한, 박 대통령과 회담
- ▲ 79. 7. 1 = 카터 대통령 방한, 박 대통령과 회담
- ▲ 81. 2. 2 = 전두환 대통령 방미,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 83.11.14 = 레이건 대통령 방한, 전 대통령과 회담
- ▲ 85. 4.26 = 전 대통령 방미,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 88.10.20 = 노태우 대통령 방미,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 ▲ 89. 2.27 =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 89.10.17 = 노 대통령 방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회담
- ▲ 90. 6. 6 = 노 대통령 방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회담
- ▲ 91. 7. 2 = 노 대통령 국민 방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회담
- ▲ 91. 9.23 = 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회담(뉴욕)
- ▲ 92. 1. 6 =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 93. 7.10 = 클린턴 대통령 방한,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
- ▲ 93.11.23 = 김 대통령 시애틀 APEC 정상회담후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워싱턴)
- ▲ 94.11.14 = 보고르(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 95. 7.27 = 김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 96.11.24 = 마닐라(필리핀)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 96. 4.16 = 클린턴 대통령 방한(제주도), 김 대통령과 회담
- ▲ 97. 6.27 = 김 대통령 유엔환경특별총회(뉴욕) 참석중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 97.11.24 = 밴쿠버(캐나다)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 98. 6. 9 = 김대중 대통령 국민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 98.11.21 = 클린턴 대통령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 99. 7. 2 = 김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2000. 6. 9 = 김 대통령, 오부치 전 일본총리 장례식때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2000. 9. 7 = 김 대통령, 천년정상회의(뉴욕) 계기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 ▲2000.11.15 = 브루나이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1. 3. 7 = 김 대통령 방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회담
- ▲2001.10.19 = 상하이(중국)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2. 2.20 = 부시 대통령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2002.10.27 = 로스 카보스(멕시코)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 ▲2003. 5.15 = 노무현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
- ▲2003.10.20 = 태국 방콕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4.11.20 = 칠레 산티아고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5. 6.11 = 노 대통령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 ▲2005.11.17 = 부산 APEC 계기 경북 경주 정상회담
- ▲2006. 9.14 = 노 대통령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 ▲2006.11.18 = 베트남 하노이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7. 9. 7 = 호주 시드니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
- ▲2008. 4.19 = 이명박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 ▲2008. 7. 9 = 일본 도야코(洞爺湖)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 ▲2008. 8. 6 = 부시 대통령 방한, 이 대통령과 회담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06/0503000000AKR2008080602960001.HTML>



[참고 2]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연합뉴스, 8/6)

(서울=연합뉴스)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합중국 대통령은 2008년 8월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상기하였으며, 금번 8.6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동맹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 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북한 문제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



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11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포괄적 협력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



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 국민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7월 G-8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끝)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06/0503000000AKR2008080604310001.HTML>

[참고 3] 한미정상 기자회견 **李대통령 모두발언**(연합뉴스, 8/6)

(서울=연합뉴스) 부시 대통령께서 로라 여사님, 따님과 함께 한국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는 오늘 부시 대통령과 취임 후 5개월여 짧은 기간 세번째 만남을 갖고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지금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이런 변화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동맹을 평화유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과 같은 세계적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3단계 조치에 관해서는 조속히 개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간 실질적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년내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의 사증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우리에게 제안해온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이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5천여명의 학생이 1년반 동안 미국을 방문해 일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 양국이 우주탐사, 과학기술 위성, NASA가 주도하는 달 네트워크사업 참여와 같은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두사람은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저는 부시 대통령께 독도 문제를 신속히 바로 잡아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 내외분이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게 여유있게 한국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나의 친구인 부시 대통령이 언제든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끝)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06/0503000000AKR2008080610280001.HTML>



[참고 4] 한미정상 기자회견 부시대통령 모두발언(연합뉴스, 8/6)

(서울=연합뉴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 김윤옥 여사의 환대에 감사한다. 로리와 저, 바버라는 오찬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의 위대한 국가 국민들이 얼마나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효과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맹이란 것은 늘 변화해야하고 침체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평가해야 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잘 돼나가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 대통령에 존경의 말을 드리고 싶다.

우리 근간에 상호 호환성이나 여러가지 갈등이나 분쟁 시기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를) 한국이 앞으로 맞게 될텐데 미국도 옆에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FTA(자유무역협정) 가입을 노력할 것이다. 연내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웨스트 프로그램도 언급했는데, 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젊은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좋은 외교 정책이란 직접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양국의 관리들이 노력할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말했다.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오메가 원자료가 영변에 있었는데, 이젠 이것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으로 직접 봐야겠다. 북한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책임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6자회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행동대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그들을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우리농 농축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말했다. 그리고 핵 확산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실험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이야말로 6자회담의 의미다. 북한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함께하며, 같은 결정을 내고 있다. (북한) 지도자의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 관광객 피살사건 관련해 조사해 달라 요청했다. 그 언급을 지지한다. 처음 그 사건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야기했다. 한국 국민이 어떻게 느꼈을 지도 이야기했다. 또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 한국이 기여한 점에 감사드리



고 싶다. 한국 국민들은 그곳에서 여러가지 임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기여했고 희생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350명을 레바논으로 파병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또 시장 개방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FTA체결은 중요한 것이다. 미국 뿐아니라 미국 기업이나 근로자에 중요하다. 의회는 이를 비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해 내가 무시할 것이다. 미국 의회서 보호주의 시그널이 나와 약간 걱정된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여러가지 FTA를 상정해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열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계속 압박할 것이고 한.미FTA는 굉장히 훌륭한 FTA라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매우 건설적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선 건설적이었고, 이에 대한 리더십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 대출이나 중기 과제에 있어서도, 많은 R&D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환경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대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관계는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끝)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06/0503000000AKR2008080609340001.HTML>



[참고 5] <표> 3차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내용(연합뉴스, 8/6)

한미동맹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재배치 합의 지속 이행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미동맹
한미FTA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 인식 재확인 자국 입법부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비준 노력한미FTA
북한문제	북핵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환영 북핵 3단계 조치 통한 핵무기 및 현존 핵계획 완전 포기 촉구 관계 정상화 과정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 의지 확인 부시 대통령, 새 정부 상생·공영 대북정책 지지 부시 대통령,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유감 표명 및 남북대화 촉구북한문제
포괄적 협력	청정개발과 기후변화 공동 대처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대한 긴밀 협조 우주탐사·우주과학·원자력평화 이용 긴밀 협력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 프로그램(WEST) 신설 한국 연내 미국 사증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노력포괄적협력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06/0503000000AKR2008080611990001.HTML>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